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
(수용능력 개선과 거점항공사 지원책 확충 필요)

2023. 03

Aero K

목차

1. 청주국제공항 현황

2. 에어로케이항공 현황

3. 청주국제공항의 현실과 한계

4. 거점항공사 지원책 부재

5. 제언

Aero_K

1. 청주국제공항 현황

1. 청주국제공항 현황

▣ 이용객 현황

- 청주공항은 중부권 거점공항이자, 행정수도 세종시의 관문공항으로, 지방공항 도약의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곳으로 평가받고 있으며,

- 코로나-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, 지난해(2022년) 국내선 이용객 310만(개항 이래 최대치)을 달성하는 등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음

▣ 항공수요 전망

- 올해부터는 일상회복이 본격화 되면서, 국내선은 물론, 오사카, 타이베이 등 기존 국제 노선들의 운항 재개가 예상되고 있어 공항 이용객은 계속해서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

(단위: 만명)

구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5년	2030년
국내	252	193	263	317	*316	*330
국제	50	5	-	-	*52	*73
합계	302	198	263	317	*368	*403

*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_공항별 항공수요 세부 전망

2. 에어로케이항공 현황

Aero_K

2. 에어로케이항공 현황

▣ 항공기 보유현황 및 도입계획

- 에어로케이항공이 보유한 Airbus社 A320 항공기는 연료효율이 뛰어나도록 설계되었으며, 운항 전구간 실시간 비행감시가 가능하고,

- 항공기간 충돌방지를 위한 시스템(TCAS)과 산악지형 또는 지상 장애물과의 충돌방지를 위한 시스템(TAWS) 등을 탑재하여 운항 안전성이 증명된 기종임

기종	등록기호	좌석수	도입시기
A320	HL8384	180석	2020년 1월

- 연내에 5대 항공기를 추가 도입하여, 2023년 12월부, 총 6대 항공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음

도입시기(2023년)				
4월	5월	6월	9월	11월
A320 #2	A320 #3	A320 #4	A320 #5	A320 #6

2. 에어로케이항공 현황

▣ 운항현황 및 노선 확충 계획

- 2023년 3월 현재, 청주/제주 단일노선을 3회/일(21회/주) 운항하고 있으며,
- 다음과 같이 국제노선 확충을 계획하고 있음

*취항 시기(2023년)				
5월	6월	7월	10월	12월
오사카(KIX)	나리타(NRT)	타이베이(TPE) 삿포로(CTS)	오키나와(OKA)	나고야(NGO) 마카오(MFM)

* 수요예측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음

3. 청주국제공항의 현실과 한계

3. 청주국제공항의 현실과 한계

▣ 현실과 한계

- 이용객 편의도모와 여객처리 능력 증대를 위한 여객터미널 확장 및 노후시설 개량, 주차장 확장 등 시설개선사업(2015~2019)을 통해, 여객 수용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나,

  * 국내: 189만명/년 → 289만명/년
  * 국제: 126만명/년 → 152만명/년

- 여전히 부족한 슬롯과 주기장 문제로 인해 항공기 수용능력 확충, 즉 운항 횟수를 늘리는데 있어서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음

- 거점 항공사(에어로케이항공) 유치에도 불구하고, 공항발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,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잠재 이용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

3. 청주국제공항의 현실과 한계

▣ 슬롯

- 평행유도로(E)가 완공된 후 2019년 2월부, 전체 슬롯은 시간당 30회로 이전(15회) 대비 100% 증대되었으나,

- 민항기에 배정된 슬롯은 시간당 6회(주말/공휴일 7회)로 이전과 변동이 없고, 주요 시간대에는 가용 슬롯이 없는 상황

-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-청주공항출장소, KASO, 항공사 합동으로 제기한 슬롯 배정기준 개선 요청으로 2022년 6월부, 가용범위내 민항기 배정기준이 10분에서 5분으로 조정되었으나,

- 시간당 배정슬롯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

3. 청주국제공항의 현실과 한계

▣ 활주로

- 두 본의 활주로 중 한 본만 *민간에 허용되어 운영됨에 따라 수용능력 증대에 분명한 한계가 있고, 고속탈출 유도로 부재로 교통량이 늘어날 경우 활주로 점유시간에 따른 혼잡 발생이 불가피

  * 민(民)에 허용된 활주로: RWY24R/06L

- 항행안전무선시설, 항공등화 등을 개선/보완하여 활주로운영등급을 CAT-II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, 안전운항 여건을 확보하고, 활주로 가용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음

  * 동계시즌 잦은 안개(저시정)로 오전 시간대 운항하는 항공편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. 일정 수준 저시정에서도 운항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요구됨

▣ 주차장

- 제3/제4 여객주차장의 주차면이 증설되어 운영되고 있지만, 여전히 많은 이용객들이 주차불편을 호소하고 있고, 최근 이로 인한 Late Show-up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

3. 청주국제공항의 현실과 한계

▣ 주기장

- 2023년 3월 현재, #1~13까지 총 13개소의 주기장이 운영되고 있음
- 현재와 같은 수준의 운항스케줄과 diversion에 대비한 예비 주기장 확보 등을 고려하면, 여유분은 5-6개소 정도인 것으로 추정됨
- 당사가 연내 5대 항공기 도입하게 되면 수용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

▣ 터미널

- CIQ 수용능력 부족, 수하물 처리시설 부족, 출/입국장 대기공간 부족, 탑승구 부족 등으로 인해 운항 편수가 늘어남에 따른 적잖은 혼잡이 예상
- 터미널 안팍으로 업무공간과 (정비자재 및 보세물품 등 보관을 위한) 창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

4. 거점항공사 지원책 부재

Aero_K

4. 거점항공사 지원책 부재

▣ 조건부 면허

- 에어로케이항공은 최초 3년간 거점(청주국제공항)이 아닌 공항에서 운항할 수 없는 강력한 제한 *조건 하에 있음

* 거점항공사로서 지역거주민들에게 항공서비스 이용의 편익을 제공하고, 지역공항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라는 취지

▣ 상생을 위한 노력

- 항공사 출범에 성원해준 충북도민에게 보답하기 위해 도민 할인 정책(정상운임 대비 15% 할인)을 지속 운영해오고 있으며,

- 용인시를 비롯한 총 8개 *미래형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과 항공권 할인 협약을 맺고 상시 할인(정상운임 대비 10% 할인)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

* 미래형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: 용인, 수원, 성남, 화성, 안성, 평택, 이천, 오산

4. 거점항공사 지원책 부재

▣ 지원책 부재

- 위와 같이 영업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여러차례 경영악화를 계속해서 견디며 운항을 이어가고 있으나, 아직까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의 현실적인 지원은 전무한 상황

- 조건부 면허의 취지를 고려하여 운수권 배분 및 슬롯 배정, 공항내 각종 시설의 이용 등에 있어 거점항공사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 수립이 시급히 요구됨

5. 제언

Aero_K

5. 제언

▣ 당위

- 거점항공사의 발전과 성장은 청주국제공항을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, 필수불가결한 조건임

▣ 제언

- **(운수권)** 항공회담을 통해 지속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*노선을 청주국제공항으로 적극 유치하고, 운수권 배분시, 거점항공사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 마련. 공항의 발전과 거점항공사 성장의 동력 확보

  * 청주-연길, 청주-장가계, 청주-울란바토르 등 대부분 운수권이 필요한 노선임

- **(슬롯)** 슬롯 확보에 있어서 거점항공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*지원책 도입

  * 특히, 국제선 신규취항(항공자유화 지역)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

- **(공항 시설)** 업무공간과 창고 등 배정시 거점항공사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, 일정 기간 시설사용료를 차등 적용(인센티브)하는 등 조건부 면허에 따른 영업규제에 상응하는 차별적 제도 운영

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Aero_K